

LCD 공장에서 불산 대량누출

PVC파이프 파열로 2500리터 유출 ... 보호장비 착용 면피

1월15일 오후 9시5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공단 소재 LCD(Liquid Crystal Display) 공장에서 불산(Hydrogen Fluoride)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있던 근로자 주모(28)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주씨는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주씨가 넘어지면서 발로 밟은 PVC(Polyvinyl Chloride) 파이프가 깨지면서 8% 농도의 불산 2500리터가 새어나왔다.

불산은 누출 직후 공장에서 자동 폐수 처리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회석된 불산이 <물 수준>이었다”며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해당공장의 안전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복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6>